

# 佛敎 儀禮儀文의 名稱에 대한 考察\*

이성운\*\*

## 【 차 례 】

- I. 緒言
- II. 命名의 準據
- III. 指稱의 原理
- IV. 結語

### 국문초록

이 글은 불교 의례의문의 명칭이 어떤 준거에 의해命名되며, 의례의문이 실제指稱되는略稱과異稱에는 어떠한 원리가 들어 있는지를 살펴본 글이다.

2장의 고찰 결과, 첫째 근현대 이전의命名은 예불·송주·수계·상례·수륙재 등 내용을 드러내는 핵심술어로 명명되고 있지만 예문(禮文) 등 몇 가지는 본문을 확인해야 의미가 드러나며, 근현대 이후에는 『석문의범』이나 『법요집』과 같이 내용이 명명의 준거라고 할 수 있으며, 둘째 『작법절차』, 『제반문』 등은 의례 순서와 방법, <대소예참>과 ‘중례문’은 의례 규모와 내부 형식, ‘龜鑑’·‘儀範’·‘三和’ 등은 교훈적 의미 등이 명명의 준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장의 고찰 결과, 첫째 ‘중례문’과 ‘대소예참’은 수량으로, ‘結手文’, ‘供養文’, ‘排備文’ 등은 행위로, ‘志磐文’과 ‘仔夔文’은撰者로, ‘千手’와 ‘雲水’ 등은簡稱이라는 기준으로略稱되고 있었으며, 둘째 ‘眞鑑遺風’이나 ‘堪忍敎’에는 당해 본이龜鑑이며正本의敎法으로 이해하거나, 作法의 절차를 바로 알아 태말충이 되지 말자는 경책의 의미를 담아 ‘太末虫’이라고 하여 수행의 좌표로 삼고 있으며, ‘焚修’와 ‘無遮法會’, ‘侍輦’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2011727)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학술연구교수

등에는 教化意志가 드러나는데, ‘供佛齋僧’ 등 信行儀禮의 異稱에는 본래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열쇠어 : 儀禮儀文, 命名, 指稱, 『作法節次』, 『諸般文』, ‘中禮文’, ‘結手文’, ‘志磬文’, ‘仔夔文’, ‘太末虫’

## I. 緒言

불교 의례의문(儀禮儀文)이라고 하면 불교 의례와 그 절차를 담은 글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명칭으로는 ‘의궤’(儀軌)와 ‘의문’(儀文)이 주로 쓰인다. 의궤는 범어 ‘kalpa sūtra’의 역어로 밀교경전에 설해진 제불(諸佛)과 보살·천부(天部) 등이 비밀단장(秘密壇場)에서 밀인(密印)을 짓고 공양을 올리고, 만다라를 염송하는 등의 의식 궤칙을 지칭한다. 한국불교 의례의문에는 의궤라고 명명된 예는 흔치 않는데, 중국 수륙재의문을 수용한 것이므로 국내에서 생성된 의례의문이라고 하기 어려운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sup>1)</sup>나 『칠중수계의궤』(七衆受戒儀軌) 등 소수에 불과하다. 반면 ‘수륙의문’(水陸儀文), ‘상의의문’(喪儀儀文), ‘시식의문’(施食儀文)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의문’이라는 명칭은 종종 사용되고 있다.

이 글은 한국불교의 의례의문이 명명(命名) 되는 준거는 무엇이며, 각 의례의문의 지칭(指稱)에는 어떤 원리와 사유가 투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sup>2)</sup> 논자는 ‘한국불교 일상의례의 명칭문제’에 관해 ‘명칭의 통합으로 인해 정진의 의미가 퇴색되었고, 이것이 생략돼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해 의례의 역할이 퇴색될 수 있다.’<sup>3)</sup>고 논변했다. 논자가 본 논문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은 한국불교의 의례의문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에 차이가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1)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HR 1), 573-620쪽.

2) 본 논문의 명칭은 명명과 지칭의 합성어임을 밝힌다.

3) 이성운, 「한국불교 일상의례의 명칭 문제-用例와 認識을 중심으로-」, 『보조사상』 38집, 보조사상연구원, 2012, 123쪽.

다. 그 까닭은 여럿이 있겠지만 “통불교(通佛敎), 원융회통불교(圓融回通佛敎), 종합불교(綜合佛敎)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체성으로 말미암는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불교는 항상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각자의 근기에 맞도록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보여오”<sup>4)</sup>면서 불교 의례의문이 다양하게 편찬되어 명명되고 지칭되는 과정에서 기인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해서 이 글은 일차적으로 『韓國佛敎儀禮資料叢書』(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 제1집~제4집<sup>5)</sup>에 실린 의례의문과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에서 찬집되거나 필사된 것, 주요 종단이나 사찰의 ‘법요집’ 등에서 확인되는 의례의문의 명칭을 대상으로 하여, 명명의 준거는 무엇이며, 지칭의 원리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의로 한국불교의례의 실행 목적과 의미, 한국불교의례 실행 주체들의 의례의문에 대한 자세와 이해, 한국불교 의례의 위상과 역할 등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어 명칭이 기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II. 命名의 準據

의례의문이 편찬되며 ‘낱말의 다양한 사용 방식이나 근친 관계가 있는 사용방식으로, 한 낱말과 한 대상의 결합으로 명명되며,<sup>6)</sup> 이렇게 ‘명명함으로써 실제 사물을 지정하고 사물의 같고 다름을 구별할’<sup>7)</sup> 수 있게 된다. 한국불교 의례의문이 편찬되고 명명된 초기 예로는 혼구(混丘, 1251-1322)의 ‘신편수륙의문’(新編水陸儀文)과 1342년 편찬된 죽암 유(猷)의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sup>8)</sup> 비록 후대 간행되었으나 『천지명양수

4) 한보광, 「한국불교의 특성에 관한 연구」, 『정토학연구』 제7집, 한국정토학회, 2007, 198쪽.

5) 朴世敏 編, 『韓國佛敎儀禮資料叢書』(HR) 第1~4輯, 三聖庵, 1993.

6)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이영철 역, 책세상, 2011, 48쪽.

7) 『荀子』, 「正名」, “制名以指實, ~ 以辨同異.”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sup>9)</sup> 등이 있다. 명칭에 나타나는 ‘새로 편찬했다’거나 ‘요점을 가려 뽑은’ 것이라는 ‘신편’(新編)이나 ‘찬요’(纂要)·‘촬요’(撮要)의 ‘요’(要)라는 정보는 해당 본의 편찬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이렇듯이 의례의문의 명칭에는 한국불교 의례의 주체들의 인식이 읽혀진다. 해서 이 장에서는 한국불교 의례의문의 명칭에 담긴 사유와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의례의문의 명칭에 나타나는 명칭의 준거와 그 사유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內容 爲主의 命名

의례의문을 편찬한 이들은 편찬된 내용에 걸맞은 이름을 부여하게 마련이다.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에 실린 74편의 의문 등을 근현대 이전과 이후로 나눠 그 특성을 살펴보자.

### 1) 근현대 이전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에 실린 74편의 의문의 명칭은 대략 다음과 같다.

#### 〈표 1〉 主要 儀文의 名稱<sup>10)</sup>

戒殺放生文, 觀世音菩薩禮文, 茶毘作法, 施食儀文, 彌陀禮贊,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慈悲道場懺法, 釋門家禮抄, 釋門喪儀抄, 禪門祖師禮懺, 受菩薩戒法,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僧家喪禮儀文, 僧家禮儀文, 禮念往生文, 禮文,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慈悲道場觀音懺法, 慈悲地藏懺法, 淨土儀範, 朝夕持誦, 三時掛念儀範, 眞言勸供, 眞言集, 天地冥陽水陸雜文,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梵音刪補集,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七衆受戒儀軌, 歎佛會法式, 華嚴禮敬文 等

8) 고상현, 「고려시대 수륙재 연구」, 『선문화』 제10집, 2011, 12쪽.

9) 이성운, 「현행 한국수륙재에 대한 검토」, 『韓國禪學』 36호, 한국선학회, 2013, 263쪽.

각 명칭에는 예참·염불·송주·수계·시식·상의(喪儀)·수륙재 등 핵심술어가 직접 기술되고 있거나 혹은 대립 및 병렬로 명명되어 있다. 특별한 설명 없이도 명칭만 보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드러나도록 명명하고 있는데, 근대 이전 의례의문의 명명의 한 준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몇 예를 예외라고 하겠다.

첫째, 『예문』(禮文, 1896)<sup>11)</sup>이나 『대·소예참』은 ‘예’의 대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예문』은 법·보·화 삼신불 등 여러 불타에게 명료한 순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절을 하는데 교학적인 바탕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관음예문례』<sup>12)</sup>는 예의 대상이 관음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예경·찬탄·참회의 형식을 지닌 의문에 대해 보통 ‘예참’이라는 명명을 따르지 않고, ‘예문’이라고 하는 것이 특이하다. 예경 이후 5회(五悔) 참회는 당연한 것이므로<sup>13)</sup> 그렇게 명명하였다고 보인다.

둘째, 위 <표>의 『석문가례초』(釋門家禮抄)나 『승가예의문』(僧家禮儀文)에서 ‘가례’나 ‘예의’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가례’나 ‘예의’는 현대적 개념의 일상적인 관혼상제의 4례로 이해할 수 있지만, 본문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오해하기 쉽다. ‘상례’라고 하지 않고 ‘가례’나 ‘예의’라고 한 것은 속가가 아닌 승가의 가례나 예의는 ‘상의’(喪儀)가 주이거나 ‘상의’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셋째, 『예념왕생문』(禮念往生文)의 경우 누구에게 ‘예’하고 누구를 ‘염’하는 의문(儀文)인지 판별하기 어렵다. 여기서 왕생할 곳은 단순히 서방정토라고 할 수 있지만, 불교 정토사상에서 왕생할 곳은 오방불의 세계이다. 임종 전의 병자에게 어떤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고 싶은지를 물어 소원에 따라 해당 부처님의 명호를 소리 내어 부르고,<sup>14)</sup> 또 그 뜻

10) 林世敏 編, 위의 책 1, 705-708쪽. 서명 색인 참조.

11) 慧溟 書, 『禮文』(HR 3), 623-665쪽.

12) 安震湖 編, 『釋門儀範』 上編, 39-54쪽.

13) 弘贊 編, 『禮佛儀式』(X 74), 635c쪽.

에 따라 오방의 불세계로 망자를 인도한다.<sup>14)</sup> 하지만 한국불교의 승가상의(喪儀) 예법에는 12아미타불 명호를 칭명하며 다비장(화장터)으로 떠날 뿐 망자가 왕생할 곳은 서방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보인다.

## 2) 근현대 이후

근현대 이후 의례의문의 書名에도 내용이 곧바로 드러난다. 『소재길상 불경요집』(1923)은 재앙을 없애고 행복을 바라며 염송하는 불경은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인식이 드러나고, 백용성의 『대각교의식』(1927)은 대각교의 의식의문임이 서명에 곧바로 드러나 있다.

『불자필람』(佛子必覽, 1931)은 불자들이 반드시 보아야 할 것들이라고 하여 일반 불자가 주 소비자라고 밝히고, 『석문의범』(1935)은 의문의 주 소비자가 전문 의례 선행 주체들임이 서명에 드러나 있다. 『불교의범』(1977)은 『석문의범』의 편제와 명명법을 따르며 백파 공선의 『작법귀감』(1926)·『제반집』 등을 참고해 편찬하였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석문의범』 편찬 체제와 명칭을 의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대 이후 의례의문에 빈번히 등장하는 명칭으로 ‘법요집’이 있는데, 대한불교조계종의 『통일법요집』(1998/2003), 대한불교진흥원의 『통일법요집』(1988), 국방부의 『국군법요집』(1996) 등이 대표적이다. 종단이나 사찰의 의례의문을 ‘법요집’이라고 하는 사례는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때의 ‘법요집’의 의미에 대해 단순히 법회 의식의 요점을 담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 의례의 작법과 같은 전통적인 ‘요집’과 같은 의미의 의례의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직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의례의문 명칭으로 『우리말 불교 의식집』(1988)과 같은 ‘의식집’이나 『불광법회요전』(1983)의 ‘법회요전’,

14) 미치하타 료우슈우(道端良秀), 『불교와 유교』, 최재경 역, 한국불교출판부, 1991, 37쪽.

15) 眞一 編, 『釋門家禮抄』(HR 2), 161-162쪽.

『신행요집』(2005)의 ‘요집’ 등이 활용되고 있다.

## 2. 形式 爲主의 命名

의례의문의 명칭이 형식 위주로 명명되는 범주는 자못 넓다. 첫째 『진언권공』(眞言勸供)이나 『작법절차』(作法節次)와 같이 의례의 실행 순서나 방법 등 의례의 행위적인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는 명명과 둘째 ‘중례문’(中禮文)이나 ‘결수문’(結手文)과 같이 의례의문의 규모나 의문 내부의 형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나뉘 볼 수 있는 명명이 있다.

### 1) 순서와 방법

공양과 시식 등 의례행위 위주로 명명된 의례의문에는 『진언권공』·『염불작법』·『작법절차』·『제반문』·『삼단시식문』 등이 있다. 『진언권공』은 진언으로 공양을 권하는 완성형 의례의문이지만 현재는 공양의례의 한 하위의식으로 축소되어 있다.<sup>16)</sup> 『진언권공』의 시작과 끝은 공양을 진설하는 ‘진공’(進供)과 공양을 물리는 ‘퇴공’(退供)인데, 현재의 ‘진언권공’은 표백(表白)과 사(四)다라니로만 한정되어 이해되고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염불작법』(1575)<sup>17)</sup>은 아미타불을 칭념하는 절차를 담고 있는 의문으로 장엄염불과 함께 행해진다. 현재 한국불교 일상에서 송주되는 ‘현행천수경’은 이 의식의 축약이라고 할 수 있다.<sup>18)</sup>

『작법절차』(作法節次)는 상위의 성현께 공양 올리는 절차로, 1496년 학조가 훈민정음으로 번역하여 『진언권공』·『작법절차』<sup>19)</sup>·『삼단시식문』에 합편되었다. 이후 이 의문은 『영산대회작법절차』(1636), 『작법귀

16) 이성운, 「한국불교 공양의식 일고」, 『한국불교학』 제57집, 한국불교학회, 2010, 371-372쪽.

17) 『念佛作法』(HR 2)

18) 이성운, 『천수경, 의례로 읽다』, 정우서적, 2011; 이성운, 「의례로 읽는 화계사 안팎의 문화」, 『한국불교사연구』 제4호, 한국불교사학회 한국불교사연구소, 2013, 316-319쪽.

19) 『작법절차』(HR 1)

감』(1826)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작법’(作法)이나 ‘요집’(要集)이라는 명칭으로 계속 출현된다. 이 유형의 ‘의례의문’은 상주권공·관음청·칠성청 등의 ‘공양의식’이 선두에 편제되고 있는 공양의례라고 할 수 있다.

『제반문』(諸般文)을 ‘사원에서 행하는 일상적 의식문들을 한데 모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정리한 의례 모음집’이라고 설명되고 있지만, 이 의례의문의 서두는 대개 시식의문이나 시왕청·재대령 이전의 시주이운(施主移運) 의식부터 편제되어 있다. 이 유형의 의례의문은 ‘시식의례’(施食儀禮)의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1573년 보현사 『권공제반문』, 1694년 금산사 『제반문』, 1719년 해인사 『제반집』, 후대 필사본인 『제반법요』<sup>20)</sup> 등에서 이와 같은 편제가 확인된다.

『삼단시식문』(三壇施食文)<sup>21)</sup>은 상위의 불단과 중위의 신중단에 공양하고, 하위의 고흔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의식으로 내용과 형식이 명칭에 함께 드러나고 있는 수록재 의문이다.<sup>22)</sup> 오늘날 한국불교에는 상단불공·중단권공·하단시식의 삼단의례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는 삼단의례의 수록재가 일반화된 잔영이라고 하겠다. 한국불교에 삼단의 시식의례가 일상화되어 있고, 삼단시식이 의례의 명칭에 고스란히 남아 있게 된 것은 ‘일체 외로운 중생에게 음식과 법식을 베푸는 시식으로’ 하화중생(下化衆生) 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2) 의례 규모와 내부 형식

<대예참>이나 <소예참> 같은 의문은 의례의 대소 규모에 따라 명칭이 표현된 것이다. ‘대·소예참’이 동시에 실린 문헌은 『석문의범』이 있는

20) 대한불교조계종 어산작법학교 학장 법안 소장 본 『太末虫』(삼각산 원효암, 黑羊 1883); 『要集』(丙午 1904년 曆書)이나 경제어산 43호 보유자 동주원명 소장본 『요집 목록』도 같은 편제를 보이고 있다.

21) 『삼단시식문』(HR 1)

22) 鄭明熙, 「朝鮮時代 佛教儀式의 三壇儀禮와 佛畫 研究」, 홍익대 대학원 박사논문, 2013, 47쪽.

데, ‘대소예참’에서 대소(大小)의 의미는, <소예참>에는 26배 · <대예참>에는 30배를 하니 ‘대·소’의 의미가 절의 회수라고 할 수 있을까. 26배와 30배의 차이만 가지고 ‘대·소’라고 하기에는 다소 약하다. 그렇다면 ‘대·소’의 의미는 무엇일까.

다음의 <대·소예참> 비로자나불 예경 의문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불보살에 대한 찬탄의 길이[長短]라고 할 수 있다.

소예참: 지심귀명례 암밤람함감 대교주 청정법신 비로자나불<sup>23)</sup>

대예참: 지심귀명례 상주법계 진언공중 반야해회 청정향업해 원명화장도 불가설  
 마니 보운 장엄 아승기광명 주망간착 일체중보 ~ 초명아침기황주 ~ 태  
 허유시일부구 형연훈현 암밤람함감 대교주 청정법신 비로자나불<sup>24)</sup>

<소예참>은 바로 명칭을 부르며 예경하지만 <대예참>에서는 구체적으로 머물고 있는 곳과 공덕을 드러내며 찬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례의문의 크기와 관련된 명칭으로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의 표지서명 ‘중례문’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자.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괘』 ·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 『수륙무차평등재의찰요』(세 수륙의문) · 『자기산보문』 · 『천지명양수륙잡문』의 다섯 중 수륙재 의문 가운데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를 ‘중례문’(中禮文)이라고 지칭한다. 이때 ‘중례문’의 ‘중’은 ‘상·중·하’의 ‘중’이라고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지만, ‘상·중·하’가 상단·중단·하단의 위(位)나 단(壇)을 지칭하는지<sup>25)</sup> ‘대소’(大小)의 ‘상·중·하’인지 쉽게 인지되지 않는다. 수륙의문의 약칭인 ‘중례’에 대한 다른 ‘대·소’의 약칭이 쉽게 찾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23) 安震湖 編, 『釋門儀範』 上卷, 卍商會, 1935, 2쪽.

24) 『釋門儀範』 上卷, 13쪽.

25) 신라대 총장을 역임하였고 불교의식에 밝았던 김용태는 중례시식(中禮施食)과 결수(結手)를 소개하면서 요새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며, 옛날 의례집에는 『대례집』 · 『중례집』 · 『소례집』을 소개하고 있다. 김용환·윤소희 공편, 『신라의 소리, 영남법패』, 정우서적, 2010, 214-220쪽.

한국불교계에는 수륙재의 세 의문에 대해, 한국불교에서 부여한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은 44편,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는 54편,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는 35(7)편의 편수에 의거하여 ‘대·소’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의 ‘대소’는 편수라고 할 수 없다. 54편의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보다 44편의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의 의문이 더 길다. 이때의 ‘대소’는 상위·중위·하위의 소청(召請)을 도청(都請)으로 하느냐, 통청(通請)으로 하느냐; 상위와 중위에 봉욕(奉浴)의식을 행할 것인가; 상위(上位)·중위에게 소청(召請)과 동시에 공양할 것인가, 아니면 중위(中位)까지 소청하고 공양할 것인가, 아니면 하위까지 소청을 하고 공양할 것인가 등의 차이에 기인한다. 세 수륙의문의 상위(단) 소청예경을 보면, 17소청예경, 3삼보도청, 1삼보도청으로 구별된다.”<sup>26)</sup> 다음의 ‘공양문’ 후행 의식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공양문’이라는 표지서명으로 유통되고 있는 『영산대회작법절차』에는, 법석을 위한 상단의 공양의식과 이후에는 시식의식인 수륙재 절차가 편제되어 있다. 상단 설법 의식 이후 ‘소례작법절차’, ‘중례문작법절차’, ‘지반문작법절차’를 연이어 실행하고 있는데,<sup>27)</sup> 상단의 공양의식이 끝나고 ‘소례결수문’나 ‘중례문작법절차’나 혹은 대례의 ‘지반문’ 의문을 선택하여 수륙재의 시식의식을 실행하라는 것으로 읽혀진다. 의례의문은 상황에 따라 선택되고 있음을 유념하면<sup>28)</sup> 이에 대한 이해가 수월해진다. 중간 횡수로 예경하는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를 ‘중례’라 하고,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를 ‘소례’라고 하였으니,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는 당연히 ‘대례’가 되는 것이다. ‘중례’라는 하나의 약칭으로 수륙재 의문의 대·중·소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었다.

26) 이성운, 「영산재와 수륙재의 성격과 관계 탐색」, 『한국불교학』 73, 한국불교학회, 2015, 433-434쪽.

27) 『靈山大會作法節次』(HR 2), 139-145쪽.

28) 知梵音 趨進會主前 拜伏云 “作法何以爲之” 會主如有可命之使命之無則云 “依例爲之” 梵音 唯唯而退. 『新刊刪補梵音集』(HR 2), 581쪽; 이성운, 「영산재와 수륙재의 성격과 관계 탐색」, 432쪽.

### 3) 教誡의 내포

의례의문에 ‘길흉을 점쳐주는 귀(龜)와 미추를 알려주는 감(鑑)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 잡는다’는 뜻의 ‘귀감(龜鑑)을 넣은 명명으로 백파공선의 『작법귀감』(1826)이나 가산지관의 『신행귀감』(1980)<sup>29)</sup>이 있다. 의례의 공능이 자신을 살피고 비추어 보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고 하겠다.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이나 『삼가귀감』처럼 ‘귀감’의 활용 폭은 넓다. 『작법귀감』의 찬자가 1830년에 ‘선문(禪文)을 들여다보는 손거울’이라는 『선문수경』(禪文手鏡)<sup>30)</sup>을 편찬하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귀감’과 ‘수경’의 공통점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의례의문도 선문(禪文)을 보는 것처럼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라는 인식이 명명에 담겨 있다고 하겠다.

『석문의범』(釋門儀範)이나 『불교의범』(佛敎儀範)의 ‘의범’도 의례의 규구준승의 모범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도 단순하지 않다. 또 하나 월운해룡이 찬한 『삼화행도집』(三化行道集, 1986)<sup>31)</sup>이 있는데, 이 의문에서 삼화는, 책 머리말의 ‘(1) 신도 전 가족을 신자로 만들자, (2) 종도의 신앙을 활성화하자, (3) 전 종도가 일선 포교사가 되자’라는 것으로 읽혀진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을 통해 신행했으면 하는 것, 수지독송했으면 하는 것, 그리고 삼보 전에 바치는 참회와 발원문 등을 엮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를 삼화의 세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이 한국불교 의례의문의 명칭에는 수행자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귀감’이라는 인식과 의례의 길잡이·의범이라는 인식이 농후하게 투영되어 있다.

## Ⅲ. 指稱의 原理

29) 李智冠, 『信行龜鑑』, 慶國寺, 1980.

30) 釋巨璇 集說, 『禪文手鏡』(HD 10).

31) 金月雲, 『三化行道集』, 寶蓮閣, 1986.

의례의문에 명칭이 부여되었으면 그 명칭으로 지칭하거나 호칭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약칭(略稱)이나 이칭(異稱)으로 지칭된다. 인명(人名)은 함부로 부를 수 없어 호(號)나 자(字)로 부르지만 의례의문은 편의성이나 해당 의문의 가치와 의미를 축약하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의례의문의 약칭이나 이칭은 단순히 이니셜이나 이니셜의 조합으로만 생성되지 않는다. 약칭이나 이칭은 대개 의문의 표지서명으로 명기되며, 의례 편차나 의문의 주석 등의 지문(地文)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의례의 실행 주체들은 대개 스승으로부터 전승받은 대로 약칭이나 이칭을 수용하며, 통상적인 의미로 이해할 뿐, 거기에 대해 깊이 있게 해설하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의례의문의 약칭이나 이칭의 생성 원리 등을 살펴보면 당해 의례의문의 용도나 의례 주체자의 의례를 대하는 인식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1. 略稱의 基準

앞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 의례의문의 제목은 『예문』이나 『청문』과 같이 두 음절에서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범음산보집』의 15음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장형의 정식 명칭으로 지칭하거나 호칭하는데는 발음이나 소통상 여러 제약이 따르므로, 약칭으로 지칭(指稱)되거나 호칭(呼稱)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

### 1) 數量

의례의문의 약칭 기준이 수량에 근거하는 사례는 ‘명명의 준거’의 형식적인 측면과 일정 부분 중복될 개연성이 다분하므로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점을 중심으로, 수적·양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의례의문의 이칭의 의미를 훑어보자.

(1)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는 표지서명으로 ‘중례문’을 달고 있다. 국내 수륙의문 간행을 보면,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가 1342년 편찬될 당시 1270년 편찬된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도 국내에 유입되었고,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도 편찬되었다고 보인다. 세 수륙의문이 인수 대비(昭惠王后)의 <중간불서목록>(1472)에 ‘이칭’으로 명기되고 있는<sup>32)</sup> 것으로 볼 때 이칭으로 지칭된 역사는 결코 짧지 않다고 하겠다. 앞에서 ‘중례문’의 ‘중’의 기준은 ‘예’의 횡수에 의거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표제어 ‘중례문’을 통해서 ‘중’에 대한 대어(對語)인 ‘소’와 ‘대’ 이외에 다른 어떤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을까.

‘중례문’이 예배의 횡수에 의거한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중례문’의 대한 ‘대례’의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나 ‘소례’의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의 간행과 유통 시기를 알게 해 준다. ‘대·소’로 분류되는 의문이 선행되고, 이후 ‘중례문’이 출현하여 명명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각각이 존재하고 있을 때 유사한 통칭의 수륙의문들의 특징 중에 예배의 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중례문’이라는 이칭으로 지칭되고, 이에 대한 여타 의문이 ‘대·소’의 예문으로 수용될 수 있었다.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를 ‘중례문’이라고 지칭함으로써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를 대례로,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를 ‘소례’라고 수용됨으로써, ‘대·소’의 두 의문에 대해 ‘결수문’과 ‘지반문’이라는 이칭으로 지칭되고 호칭되게 한 것은 한국불교 의례 주체들의 기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32) 김두중, 『한국고인쇄기술사』, 탐구당, 1973, 173-174쪽.

(2) ‘대소’의 기준에 의해 지칭되거나 호칭되는 의례의문은 ‘대·소예참’이 있다. 앞 장에서 언급하였지만 이때의 ‘대·소’는 예경의 횃수[數]보다 찬탄의 길이에[量] 근거하고 있다고 하였다. 양적인 측면에서 ‘대·소’를 구별하는 의례의문의 사례는 종종 확인된다. 대표적인 예의 하나로 『대각교의식』(1927)에 담긴 <시식약례>(施食略禮)와 <시식광례>(施食廣禮)를 들 수 있다.<sup>33)</sup> 이 의례는 독립된 의례의문이 아니라 약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의례의 제목에 ‘약례’와 ‘광례’라고 하여 예경 횃수보다 규모의 측면에서 대·소가 드러나고 있다.

규모의 대소에 따른 의례의문으로 ‘대청불’(大請佛)과 ‘소례단청불’(小禮單請佛)이 있다. 이 의례의문은 오늘날 영산재의 대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영산대회작법절차』에서 확인되는데,<sup>34)</sup> 대청불은 크게 청하는 의례이고, 단청불은 간단히 청하는 의례의문이라는 뜻이다. 크게 청한다는 것은 청사와 청문을 갖추서 불보·법보·승보의 삼보로 나눠 절하며 청하는 것이고, 간단하게 청할 때는 아래 예문과 같이 유치(由致: 청하는 연유를 밝히는 글)와 청사(請詞)를 7언 절구의 한 수 계송에 그 의미를 모두 담아 청하는 방식이다.

시방삼세의 부처님과 바다 속 용궁에 감춰진 미묘한 일만의 진리와 보살 연각 성문 대중을 받들어 청하오니, 자비를 버리지 마시고 강림을 바랍니다.<sup>35)</sup>

당일의 일정이 바쁠 때 위 계송으로 ‘단청불’을 하는데<sup>36)</sup> 이때는 ‘대청불’의 청사 ‘각조원명’부터 삼계사부청을 없애고<sup>37)</sup> 위의 계송부터 시

33) 백상규, 『대각교의식』(『용성대종사전집』 8), 493-512쪽.

34) 『靈山大會作法節次』, 133-134쪽.

35) 『靈山大會作法節次』, 134上쪽. “奉請十方三世佛 龍宮海藏妙萬法 菩薩緣覺聲聞衆 不捨慈悲願降臨”

36) 智禪 撰, 『五種梵音集』(『HR 12』), 160上쪽. “見機日促忙迫則單請佛可也”

37) 智還 集,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HD 11), 467下쪽. “略則自覺緣圓明至三界四府請除之”

작해 다음의 자리를 드리는 헌좌계송과 진언을 염송하여 일정을 단축한다. 의례의 수적 규모뿐만 아니라 양적 규모의 대소에 따른 ‘대·소’나 광략(廣略), 대청불과 단청불의 ‘대·단’(大單)으로 지칭되는 의례의문의 이칭에는 의례상황에 즉대하여 의문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대기(對機)와 응용(應用)의 철학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行爲

구체적인 의례행위를 중심으로 의례의문이 지칭되는 예도 적지 않다. 앞서서도 보았지만 ‘결수문’(結手文), ‘공양문’(供養文), ‘배비문’(排備文), 청문(請文) 등이 그것이다.

‘결수문’은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의 표지서명인데, ‘중례문’에 대한 ‘소례문’이라고 칭할 수 있지만 의례의문 내에 수인(手印) 작법이 설명되어 있고 법식에 따라 도안이 그려져 있다 하여 ‘결수문’이라 칭해진다. 결국 불특정 다수의 고혼들에게 시식(施食)을 실현하는 수륙재 의문인 ‘결수문’은 수인을 결인하는 ‘결수’ 행위를 드러내기 위한 지칭이다. ‘중례문’의 “이곳에 있는 인계(수인) 등과 법구는 소본에 실려 있어 이곳에서는 거듭 신지 않는다”<sup>38)</sup>고 하는 협주를 보면 결수는 ‘결수문’으로 봉행하는 의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공양문’은 영산대회작법절차』(1634)의 표지서명으로 ‘영산재’의 중심 의미를 ‘공양’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영산대회작법절차』의 선행된 의례의문으로는 『진언권공』(1496)에 합편된 『작법절차』가 있다. 이 의문에 실린 ‘다섯 종류의 거불(學佛)로 볼 때, <法華>·<華嚴>·<三昧懺>·<楞嚴>·<彌陀>·<圓覺>·<懺經>법석 등의 법석을 행할 때 작법하는 절차이다.’<sup>39)</sup> 『작법절차』가 경전을 염송하는 야단법석의 절차로, 각

38)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HR 2), 217下쪽. “所有印契等法具載小本此重錄”

39) 이성운, 「영산재와 수륙재의 성격과 관계 탐색」, 426쪽.

경전의 설주인 불보살을 청해 공양 올리는 의식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법석의 영산재 이후 오후에 열리는 수륙재의 ‘시식’에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배비문’은 『天地冥陽水陸雜文』의 표지서명으로 수륙재의 연기·표문·방문·소문·첩문·윤단도(輪壇圖) 등 수륙재 설행의 부수자료를 모아 놓고 있다.<sup>40)</sup> 그러므로 ‘공양문’이 영산재 의문이고, ‘결수문’이나 ‘중례문’이 수륙재 의문이라면, ‘배비문’은 수륙재 참고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다. 수륙재를 배치하고 준비하는 글월을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명명되고 지칭되었다고 보인다. 1724년 해인사에서 계과성능이 간행한 『자기문절차조례』<sup>41)</sup>는 명칭에 드러나듯이 ‘배비문’ 유형의 의례의문인데 ‘배비문’에서 부족하다고 보이는 설단 등 배치규식이 잘 설명되어 있다.

‘청문’<sup>42)</sup>은 청하는 문장이라는 뜻으로 청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약칭되었다. 이렇게 약칭된 것은 의례의 대상을 청하는 문장이 주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문’이라고 지칭된 연유를 보면, 의례가 의례의 대상을 청해 공양을 올리고 소원을 아뢰고 마지막에 청한 대상을 본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과정이라고 할 때, 청하는 문장 이외의 내용, 다시 말해 자리를 권해드리거나 공양을 올리는 의례 등은 어떤 대상을 청하더라도 동일하고, 청하는 대상에 따라 청하는 문장만 다르므로 그리 명명되고 지칭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청문’은 각각의 청사(請詞)로 구성되었으므로 그 대상은 여러 불타와 보살이다. 해서 ‘제불통청’이 선두에 시안처럼 편집되어 있는데, 이를 현재 한국불교에서는 삼보를 청하는 청문이라는 의미의 ‘삼보통청’이라고 하여 구별하지 않고 있다. 또 근현대로 올수록 ‘청문’의 간행은 잘 보이지 않고 ‘제불통청’이나 ‘삼보통청’이라고 ‘지칭’하고 있다고 보인다.

40) 『天地冥陽水陸雜文』(HR 1), 501-571쪽.

41) 桂坡聖能 編, 『仔夔文節次條例』(HR 2), 687-700쪽.

42) 『請文』, 玄敏 寫, 1529, 동국대 도서관 고서번호 218.7저71호.

### 3) 撰者

의례의문의 찬자를 따라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를 ‘지반문’이라거나 『仔夔刪補文』을 ‘자기문’(仔夔文)이라는 이칭으로 지칭되는 것이 그것이다.

‘지반문’은 송나라 지반이 1270년에 편찬한<sup>43)</sup>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의 국내 유통본의 이칭이다. 신찬속장경에 실린 6권본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sup>44)</sup>나 중국 대만 불광사 수륙재의 대본인 『수륙의궤회본』<sup>45)</sup>과 ‘지반문’을 비교해 보면, 처음 시작하는 개계불사편·결계편은 비슷하지만, 나머지는 한국적인 모습으로 축약되어 있다. 축소지향적인 한국의 ‘지반문’이 편찬될 무렵 국내 수륙재 실행 상황이, 원본으로 추정할 수 있는 속장경에 실린 의문이나 대만의 『수륙의궤회본』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고 보인다. ‘중례문’이나 ‘결수문’과 달리 찬자를 이칭으로 삼은 까닭은 명확하지 않지만 ‘어록’ 등과 같이 원 편찬자가 분명해 그것을 드러내었다고 추측된다.

‘자기문’은 금나라 자기(仔夔)가 1150년에 편찬한<sup>46)</sup> 10권본 『자기산보문』의 이칭이다. ‘자기문’은 국내에서 누차 간행되지만, 현재 한국불교에서 수륙재가 ‘지반문’으로 실행되는 사례는 잘 확인되지 않고, 대체로 ‘결수문’이나 ‘중례문’으로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관음보살 등을 독립적으로 청해 공양하고 축원하며 실행하는 양태는 ‘자기문’의 수륙재 실행 순차에 따라 각단 형태로 편찬한 형태와 유사한 점이 적지 않다. 가령 ‘결수문’이나 ‘중례문’의 편제와 달리 현행 한국불교 수륙재는 각 위(位)의 불(佛)이나 관음보살·신중(神衆) 등을 별칭해 공양하고 축원하는 독립적인 봉청→공양→축원의 양태로 실행되고 있다. 이것을 보면, 수륙의문 ‘자기문’이 현행 한국불교 수륙재나 일상의례의 실행 양태 형성에 적

43) 鄭明熙, 「朝鮮時代 佛教儀式의 三壇儀禮와 佛畫 研究」, 30쪽.

44)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X 74)

45) 印光 撰, 『水陸儀軌會本』, 中華民國 台北: 宏願出版社, 中華民國 94年.

46) 鄭明熙, 앞의 논문, 30쪽.

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sup>47)</sup> 『자기산보문』을 ‘자기문’이라는 이칭으로 지칭되고 있는 점은 ‘지반문’의 인식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하겠다.

#### 4) 簡稱

약칭의 제일의는 의문의 명칭에서 선행 두 자로 지칭하는 간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형의 명칭을 모두 지칭하거나 호칭하는 데서 일어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쉬운 법이라고 하겠다. 영산재의문을 ‘영산’, 수록재의문을 ‘수록’, 『운수단가사』를 ‘운수’, 『예수시왕생칠재의 찬요』<sup>48)</sup>를 ‘예수’, 점안의식을 ‘점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간칭은 경제성은 뛰어나지만 의례의 의미나 주체의 인식이 잘 드러나지 않고 때로는 본질이 잘못 전달될 염려도 있다. 현행 한국불교의 송주 의문인 『천수경』을 ‘천수’라고 약칭하는데 이때 ‘천수’라고 하면 ‘현행천수경’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전에는 천수다라니만을 지칭하였다. ‘현행천수경’이 현재 한국불교 일반에서 수용되고 있는 ‘천수경’으로 그 범주가 확립된 것은 그리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sup>49)</sup> 논자는 조석의 ‘염불작법’의 축소형태가 ‘현행천수경’은 여러 의식이 합편된 것으로 선두의 ‘천수주’에 의지하여 모든 염송작법의식을 ‘천수경’이라고 명명함으로써 이후의 준제진언염송의식이 ‘천수’에 편입되어 그 고유성이 사라지게 되었다.<sup>50)</sup>

또 『운수단가사』(1627)<sup>51)</sup>는 서산 휴정(1520~1604)의 편찬으로 알려졌다

47) 홍지현, 『18세기 경북지역 사찰의 수록재 설행과 공간이용』, 경북대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2014, 81쪽. ‘자기문’과 ‘지반문’과 비슷하게 18세기 경북지역 수록재 설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8)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HR 2)

49) 정각은 『천수경연구』(운주사, 1996/1997)에서 ‘현행천수경’으로 확립된 것은 1969년 통도사 『행자수지』본으로 설정하고 있다.

50) 이성운, 『천수경, 의궤로 읽다』, 정우서적, 2011/2015.

51) ‘선가일용작법’으로 보면 『운수단가사』(HR 2, 11~27쪽)의 운수는 운수납자라고 할 수 있다.

고, 운수'로 지칭되는데, 이때의 '운수'는 운수납자라고 할 수 있지만, 수록재 '운수단'이나 '운수상단'의 '운수'를 운수 행각하는 선승인 운수납자를 지칭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불재승'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면 범패 하는 승려들은 불원천리를 마다 않고 재장으로 모여든다. 이때 유나소에서는 염불을 할 수 있는 이들의 소임을 정하는 초방(草榜)을 적는다.<sup>52)</sup> 재회 전에 '운수단'을 차리고 범패로 권공을 하며 범패 실력을 보이는데 일종의 리허설이라고 할 수 있다. 범패 실력에 따라 재회의 소임이 주어진다. 해서 이때의 운수승은 타 사찰에서 온 범패승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sup>53)</sup> 또 수록재 소문에는 모모 단월은 일인의 법사승과 승단을 모 사찰로 보내 '천지명양수록재'를 열라고 명하고 있다.<sup>54)</sup> 이와 같은 사실 등으로 볼 때 '운수납자'는 외부 사찰에서 온 범패승이라고 할 수 있다.

## 2. 異稱의 根據

그렇다면 의례의문의 이칭은 무엇을 근거로 생성되고, 또 거기에 어떤 사유가 묻어 있는지, 명칭의 근거와 약칭의 기준에서 살펴보지 않은 '이칭'을 중심으로 한국불교 의례의문에 담긴 사유의 언저리를 되돌아보도록 하자.

### 1) 教法

의례의문의 정식 명칭은 속 표제에, 약칭이나 이칭은 표지서명에 나타난다. 의례의문의 서명이라고 잘 이해되지 않는 명칭으로 '진감유풍'(眞鑑遺風)과 '감인교'(堪忍教) 등이 있다.

'진감유풍'<sup>55)</sup>은 1857년 12월에 함경도 안변 석왕사 내원암에서 보훈

52) 金月雲, 『日用儀式隨聞記』, 중앙승가대출판국, 1991, 82-83쪽.

53) 이성운, 「수록재의 연유 및 설행과 의문의 정합성」, 『불교의례』, 열화당, 2015, 253쪽.

54)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HR 1), 646-647쪽.

이 내려쓰기로 필사한 <사명영일혼시식절차>(四明迎日魂施食節次)의 표지서명인데, ‘사명일’을 ‘사명영일혼’이라고 도치해 명기하고 있다. ‘사명일’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니다. ‘영일’을 도치해 명기하며, ‘영’자와 ‘일’자의 각 오른쪽에 상·하(上下)자를 작은 글자로 토를 달고 있다. 사명일에 맞이하는 혼령의 상하를 드러내고 있다. 또 협주로 대개 사명일은 혼령을 맞이하여 시식할 때는 주지와 대증은 밖으로 영혼 소로 나아가서 종과 소와 바라를 울리며 거불을 하고 소문을 읽고 난 다음 지옥계주(地獄偈呪)를 염송하라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사명일은 설날(正朝)·단오(端午)·백종(百種)·추석[加午]의<sup>56)</sup> 4일로, 이 날은 ‘밝아지는 날’이고 명절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런데 왜 이 의문을 ‘진감유풍’으로 지칭하였을까. 별도의 서문이나 발문이 없는 한 그 진의를 알 수 없지만 대략 두어 가지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사명일 대령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참된 귀감이며 전범임을 표현하고자 함이 아닐까 한다. 의례의문이 편찬되는 제일 동기는 의문의 정본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감’(鑑)에 그 의미가 가득 담겨 있지만 마치 오늘날 ‘진짜 참기름’이라고 하듯이 정본이라는 확신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명일은 삼위의 영혼을 청해 제사를 올리는 의식으로 근대국가 이전 사찰의 가장 큰 의무로서 이때의 대령은 재를 올리는 때 행하는 재대령(齋對靈)과 달리 명도귀계의 불특정 다수 영혼을 청해 <전(奠)시식>하는 바른 유풍을 담고 있다는 자긍심의 발로라고 보인다.

‘감인교’<sup>57)</sup>는 ‘제반법요’(諸般法要), ‘법집’(法集) 등의 제목들과 함께 표지서명으로 ‘감인교’을 달고 있는 ‘제반문’ 계통으로 <시주이운>과 <재대령>으로 이어지는 188장의 다대한 의례의문이다. 필사연도는 명기되지 않지만 편제와 수록 의례로 볼 때 20세기 이전 필사라고 보인다.

55) 대한불교조계종 어산작법학교 학장 법안 소장.

56) 智還 集,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HD 12), 176中쪽.

57) 대한불교조계종 어산작법학교 학장 법안 소장.

‘진감유풍’이 ‘대령’하는 의례의문이라면, ‘감인교’는 시주 가(家)의 특정 혼령을 위해 재대령과 각종 이운 및 영산작법 각배 등이 행해지는 전통의 영산·수륙재 의문으로 이 의례의문의 절차는 전통적인 한국형 수륙재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의미 있다고 하겠다. 영산작법과 예수재·수륙재 및 각종 점안법식 등을 편제한 이 의례의문을 ‘감인교’라고 한 연유는 의례의문이 진정한 사바세계의 중생을 위한 교법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서 4명일에 불특정 국혼과 승혼 및 고힌을 청해 시식을 베푸는 <사명일대령시식의문>을 ‘진감유풍’이라고 한 것이나 영산·수륙재의 재회 의례의문을 ‘감인교’라고 이칭하고 있는 것은 참된 교법을 정하고자 함이며, 바르게 유풍을 잇고자 함이고, 사바세계의 중생을 건지는 가르침이라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담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 2) 修行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나 중생을 구제하는 과정을 형식으로 드러내는 의례에는 자기 수행적인 측면과 타자를 위한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 자기 수행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의례의문의 이칭 가운데 좀 특이한 ‘태말충’(太末虫)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태말충’<sup>58)</sup>의 원 제목은 ‘선가일용요집’(禪家日用要集)인데, 흑양(癸未, 1883) 해에 삼각산 원효암에서 송진해(宋震海)가 필사한 것으로 상주권공·중단권공·지장청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필사자 스스로 선가의 ‘일용요집’이라고 하였듯이 『작법절차』나 『작법귀감』과 같은 ‘작법’ 계통의 ‘요집’이라고 볼 수 있어, 세부의 내용은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선가의 일상 ‘요집’의 표지서명을 왜 ‘태말충’이라고 하였을까. 태말충은 대혜종고(1089-1163)의 『서장』 ‘답증시랑천유’(答曾侍郎天游)에

58) 대한불교조계종 어산작법학교 학장 법안 소장.

서 비유되고 있는데, 동파리로 더럽거나 깨끗함을 가리지 않고 깨끗한 음식에 더러운 것을 묻히는 일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그것이 나쁜 행인지도 모르는 것을 비유한다. 이 의례의문의 필사자는 ‘자서’(自序)에서 재공을 할 때 칭하고 찬탄하고 하는 것이 일관되게 예의에 맞지 않고 단지 그 소리만 취해 부드럽고 아름다움이 문장과 관련이 없다고 비판하며 필사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작법귀감』 <서문>에서 ‘경위나 고서를 잘못 알아 부처님을 공양하는 경사스러운 일이 도리어 불교를 비방하는 큰 허물이 되고 있다.’<sup>59)</sup>고 힐난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가리지 못하고 이곳저곳에 앉아 깨끗함을 더럽히는’ 태말충은 (지혜의) 불꽃에 앉아 죽게 된다는 데서 작법 절차를 담은 요집에 ‘태말충’이라는 이칭을 단 의도가 드러난다. 첫째 작법의 절차를 바로 알아 태말충이 되지 말자는 것일 테고, 둘째 의례의 절차 등을 여법하게 설행하여 태말충과 같은 더러운 벌레를 태워버리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태말충’은 의례의 의미와 의례 담지자들에게 중의적인 비유로 경책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칭이라고 하겠다.

### 3) 教化

깨달음을 얻은 [得力] 수행자는 이제 나의 교화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산을 내려와야 한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깨달음의 산에 오르도록 돕는다. 의례에는 자기완성과 타자의 교화라는 기능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신도를 위해 행해지는 의례의 기능은 교화에 중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수’(焚修)와 ‘무차법회’(無遮法會)는 그 본질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도 있고 한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다뤄보고자 한다.

‘분수(焚修)’에 대해 『계초심학인문』의 역자들이 대개 ‘예불’ 또는 ‘예불하고 수행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sup>60)</sup> ‘<분수작법>은 업장을 참회하고

59) 巨璇集, 『作法龜鑑』(HD 11), 552中쪽.

60) 김호성, “예불을 함에 있어서는, 아침저녁으로 부지런히 행하고”, 『계초심학인문』, 민

선근을 늘이는 조석 정진 법식<sup>61)</sup>으로 수륙재를 개설하여 대령을 하였을 때 대령한 영가들의 업장을 참회해주고 선근을 늘려주기 위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대령의>(對靈儀) 다음에 혼(昏)분수와 신(晨)분수 작법이 시설되고 있는데,<sup>62)</sup> 나와 남의 업장을 소멸하고[焚] 정근으로 공덕을 닦는[修] <분수작법>은 자타불이의 교화의례라고 할 수 있다. 분수를 닦는 승려를 ‘분수승’<sup>63)</sup>이라고 하며, ‘노전’(爐殿)이나 ‘부전’과 같은 소임이라고 하겠다.

‘무차법회’는 수륙재의 이칭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만 재회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모두에게 음식을 베푼다’는 무차대회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절에는 밥 먹으러 가는 거다’<sup>64)</sup> 하는 ‘의미 있는’ 이해도 등장하게 된다. 무차대회는 『수륙무차평등재의』의 이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려 초기 수륙재회는 ‘무차대회’로 지칭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한국불교에서 설행되는 재회는 대개 ‘시련’→‘대령’→‘관욕’의 순서로 진행된다. 처음에 행하는 시련의식은 그 의문이 <시주이운의식> 또는 <시주봉연지례><sup>65)</sup>(施主奉筵之禮)라고 할 수 있는데 시련에 대해 “수륙법회를 증명할 불보살님을 비롯하여 수륙도량을 호위할 신증을 모셔오는 의식”<sup>66)</sup>이나 “시방의 제현성을 위시한 대범천왕 제석천왕 그리고 가람을 수호하는 팔부의 신중 등 일체 호법성중”<sup>67)</sup>으로 이해하곤 한다.<sup>68)</sup> 하지만 시련의 첫 의문인 옹호계송은 성현을 봉칭하고 있지만 그

족사, 1993, 96쪽; 심재열, “예불할 적에는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행하되”, 『해설 초발심자경문』, 보성문화사, 1998, 102쪽; 일휴, “예불하고 수행해 나아가되 아침·저녁으로 부지런히 행하여”, 『초발심자경문』, 정우서적, 2005, 15쪽.

61) 이성운, 「한국불교 일상의례의 명칭 문제」, 13쪽.

62) 智還 集,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 11, 462-464쪽.

63) 『三國遺事』 「射琴匣」條.

64) 신규탁, 『선사들이 가려는 세상』, 장경각, 1998, 133-135쪽.

65) 智禪 撰, 『五種梵音集』(HD 12), 181下쪽.

66) 미등, 『국행수륙대제-삼화사 수륙재를 중심으로』, 조계종출판사, 2010, 52쪽.

67) 『영산재』,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138쪽. 이 책의 편자는 『불교의식각론』Ⅱ, 한국불교출판부, 2000, 33쪽에도 같은 언급을 하고 있다.

제목을 ‘옹호계’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청하는 목적은 봉청이 아니라 ‘시련을 옹호해달라’는 발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시련의식 의문은 <시주이운> 의문으로 시주 가에서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맞이하는 의식<sup>68)</sup>이므로, 설편재자의 입장의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

#### 4) 信行

수행과 신행이 둘로 나뉘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력적인 수행과 신앙적인 신행으로 나뉘볼 수도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공불재승’(供佛齋僧)은 대표적인 신행의례라고 할 수 있다. 공불재승은 『조선실록』에는 ‘공불반승’(供佛飯僧)·‘재불반승’(齋佛飯僧)·‘반불재승’(飯佛齋僧)’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인터넷번역판에서는 “부처에 이바지하고 중에 재(齋) 올리는”이라는 바른 번역도 보이지만 “불공(佛供)하는 재승(齋僧)들의”이라고 전혀 달리 이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불재승’은 재가 불자가 절에 가서 불전에 공양하고 승려들께 재물을 올리는 의례로, 청정한 승려들에게 재를 올려 공덕을 짓는 데 목적이 있다. 이때 재를 받는 승려가 없으면 재를 올리는 자의 공덕이 성취되지 않는다. 그런데 ‘재를 받는 승려’라는 의미의 ‘재승’을 불가 안에서조차 ‘재바치’라는 편휘어가 음양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것은 본의 아니게 재가 불자의 신행을 경시하게 되는 것이고, 재가자의 신심이 옳게 드러나는 공양의례인 공불재승의 본질조차도 왜곡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잘못 이해하는 기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이 의례의문의 명칭이나 이칭의 의미를 제대로 밝혀보면 의례의문의 가치는 물론이고 의례 주체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글에서는 깊이 다루지 못했지만 의례의문과 불교신행의 역사도 드러날 수 있다고 하겠다.

68) 이성운, 「현행 수록재의 몇 가지 문제」, 『정토학연구』 18집, 정토학회, 2012, 183쪽.

69) 智選集,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HD 11), 465上쪽.

## IV. 結語

의례의문이 편찬되면 의당 이름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 한국불교 의례의문의 명명의 준거는 무엇이고, 의례의문의 지칭의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II장에서는 의례의문의 ‘명명의 준거’에 대해 내용을 위주로 하는 명명과 형식을 위주로 하는 명명으로 크게 나눠 고찰하였다. 첫째 근현대 이전의 의례의문의 명명은 내용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예불·염불·송주·수계·상례·수륙재 등의 핵심술어를 기술하지만 예문(禮文)·가례(家禮)·예념(禮念) 등 몇 가지는 본문을 확인해야 의미가 드러난다. 근현대 이후의 의례의문의 명명 역시 『불자필람』, 『석문의법』, 『법요집』과 같이 명칭에 그 내용을 곧바로 드러내고 있었다. 둘째 형식을 위주로 하는 명명에는 의례의 순서와 방법, 의례 규모와 내부 형식, 교훈적 의미 등이 그 기준이 되고 있다. 『작법절차』·『제반문』·『삼단시식문』이 순서와 방법을 준거로 삼고 한 명명이고, <대소예참>, ‘중례문’, ‘공양문’ 등은 의례 규모와 내부 형식에 준거한 명명이며, ‘귀감’·‘의범’·‘삼화’ 등의 술어를 통해 의례의 명칭에 교훈적인 의미를 담아 명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I장에서는 의례의문의 명칭으로 지칭되고 호칭되는 약칭과 이칭의 원리를 살펴보았다. 첫째 약칭의 기준으로는 의례의문에서 보이는 수량과 행위, 찬자, 간칭을 중심으로 살폈다. ‘중례문’은 예경의 회수에 의한 구별이고, <대소예참>, ‘광례와 약례’, 대불청과 단청불은 찬탄이나 의례 규모의 측면 등 수량으로 구별하여 지칭되며 대기(對機)와 응용(應用)의 사유가 드러난다. 또 ‘결수문’·‘공양문’·‘배비문’·‘청문’ 등은 의례 행위를 중시하여 지칭하고 있으며, 또 ‘지반문’이나 ‘자기문’처럼 의례의 원 찬자가 분명할 때는 명칭에 찬자를 내세운 이칭으로 지칭하고 있다. 아울러 장형의 의례의문의 명칭의 경우 선행 두 자를 약칭이나 이칭으로

삼기도 하지만 천수경의 ‘천수’와 『운수단가사』의 ‘운수’의 경우는 의미와 범주가 적지 않은 차이를 안고 있었다. 둘째 의례의문의 이칭의 근거를 되돌아보았는데, 교법과 수행, 교화, 신행이라는 기본적인 인식과 사유가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명일대령시식절차>를 ‘진감유풍’이라고 하여 당해 필사본이 귀감이며 정본의 교법이라는 것을 드러내거나 ‘감인교’라고 하여 전통적인 한국형 수록재를 사바세계의 중생을 구제하는 교법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 상주권공이 선두에 편집되는 『작법절차』 계열의 의례의문을 ‘태말총’으로 이칭하고 있는데, 이는 작법의 절차를 바로 알아 태말총이 되지 말자는 경책을 담고 있기도 하다. 또 ‘분수’와 ‘무차법회’, ‘시련’ 등에는 자타불이의 중생구제를 실현하는 의도를 드러낸 의례의문의 이칭도 특이하다. 아울러 ‘공불재승’의 재가 신행의례는 명칭과 이칭, 행위 등이 잘 구별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조차 퇴색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결국 한국불교 의례의문의 명칭은 다양한 의미와 사유가 투영된 기호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의례를 통해 자타불이의 구제를 실천하려는 의지와 인식을 드러내는 표지임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朴世敏 編) = HR  
『韓國佛教全書』(동국대학교출판부) = HD  
《大藏新纂卍續藏經》 = X

『荀子』  
『三國遺事』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X 74)  
『禮佛儀式』(X 74)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HR 1)  
眞一 編, 『釋門家禮抄』(HR 2)  
『新刊刪補梵音集』(HR 2)  
『靈山大會作法節次』(HR 2)  
慧溟 書, 『禮文』(HR 3)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HR 2)  
『天地冥陽水陸雜文』(HR 1)  
桂坡聖能 編, 『子夔文節次條例』(HR 2)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HR 1)  
智禪 撰, 『五種梵音集』(HD 12)  
巨璇 集, 『作法龜鑑』(HD 11)  
釋巨璇 集說, 『禪文手鏡』(HD 10)  
智還 集,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HD 12)  
백상규, 『대각교의식』(『용성대중사전집』 8)

印光 撰, 『水陸儀軌會本』, 中華民國 台北: 宏願出版社, 中華民國 94年.  
金月雲, 『三化行道集』, 寶蓮閣, 1986.  
李智冠, 『信行龜鑑』, 慶國寺, 1980.  
金月雲, 『日用儀式隨聞記』, 중앙승가대출판국, 1991.  
『請文』, 玄敏 寫, 1529, 동국대 도서관 고서번호 218.7저71 ㄷ.

고상현, 「고려시대 수록재 연구」, 『선문화』 제10집,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1, 1-49쪽.  
김두중, 『한국고인쇄기술사』, 탐구당, 1973.  
김용환 · 윤소희 공편, 『신라의 소리, 영남법패』, 정우서적, 2010.

- 미등, 『국행수륙대제-삼화사 수륙재를 중심으로』, 조계종출판사, 2010.
- 신규탁, 『선사들이 가려진 세상』, 장경각, 1998.
- 심상현, 『불교의식각론』 II, 한국불교출판부, 2000.
- 이성운, 「영산재와 수륙재의 성격과 관계 탐색」, 『한국불교학』 73, 한국불교학회, 2015, 9-45쪽.
- \_\_\_\_\_, 『천수경, 의궤로 읽다』, 정우서적, 2011.
- \_\_\_\_\_, 「의례로 읽는 화계사 안팎의 문화」, 『한국불교사연구』 4호, 한국불교사학회 한국불교사연구소, 2013, 290-333쪽.
- \_\_\_\_\_, 「한국불교 공양의식 일고」, 『한국불교학』 57집, 한국불교학회, 2010, 283-310쪽.
- \_\_\_\_\_, 「한국불교 일상의례의 명칭 문제-用例와 認識을 중심으로-」, 『보조사상』 38집, 보조사상연구원, 2012, 97-126쪽.
- \_\_\_\_\_, 「현행 한국수륙재에 대한 검토」, 『韓國禪學』 36호, 한국선학회, 2013, 253-285쪽.
- 정각은 『천수경연구』, 운주사, 1996/1997.
- 鄭明熙, 「朝鮮時代 佛教儀式의 三壇儀禮와 佛畫 研究」, 홍익대 대학원 박사논문, 2013.
- 한보광, 「한국불교의 특성에 관한 연구」, 『정토학연구』 7집, 한국정토학회, 2007, 169-200쪽.
- 홍지현, 『18세기 경북지역 사찰의 수륙재 설행과 공간이용』, 경북대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2014.
- 미치하타 료우슈우(道端良秀), 『불교와 유교』, 최재경 역, 한국불교출판부, 1991.
-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이영철 역, 책세상, 2011.

## Consideration of the naming of the Buddhist ritual programs

Lee, Seong-Woon

This writing considers by what standard the title of the Buddhist ritual programs are named and what principle the short title and the nick name for them used actually include.

The second chapter results in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ly, the naming prior to modern times indicated the core predicate which showed the contents of the ritual orations such as Yebul(禮佛, worship of the buddhas) · Songju(誦呪; recitation of mantras) · ordination(受戒) · funeral rites(喪禮) · Suryukjae(水陸齋, the offering ritual for land and water) although some require consideration of the content to understand the meaning. Meanwhile, in more modern times the standard for the naming has reflected the contents such as *Seokmuneubeom*(釋門儀範, *The Standard manual of the Buddhist rituals*) and *The Collection of the Manuals of Rituals*.

Secondly, *The Procedure for the Rules of conduct*(作法節次, *Jebanmoon*(諸般文; *the oration for the general rituals*) were named after their order and way, *Daesoyecham*(大小禮懺, worship and repentance in large or small) and *Jungryemun*(中禮文; the ritual program in epitome) were after the scale of the rituals and the format of them. *Paragon*(龜鑑), the standard of the rituals(儀範) and three kinds of the edification(三化) were after the lessons they contained.

The third chapter sums up as follows. To begin with, the short title of *Jungryemun* and *Daesoyecham* were named after the scale. *Gyeolsumun*(結手文, making mudrās), offering(供養文) and the arrangement(排備文) were after the activity involved. The shorthand for *Jibanmun*(志磐文; the ritual program by Giban) and *Jagimoon*(仔夔文; the ritual program by Jagi) were after their compilers. The thousand hands(千手) and the cloud and water(雲水) are the abbreviation for the first two syllables of their full names.

Besides, the names of *Jingamyupoong*(眞鑑遺風; the true example of the

custom) and Kamingyo(堪忍教; the teaching of endurance) mean that they are the paragons and the originals for the doctrinal teaching. Blowfly(太末虫) was named in order to make it the strong warning for the discipline that we should know the correct procedure for the rules of conduct and not be like the blowfly. The extinction of hindrance of karma and the merit(焚修, Muchabeophoe(無遮法會, Buddhist ceremony without restriction) and Siryeon(侍輦, the rite of serving a sedan chair) have the meaning of the edification. The nickname of the ritual for the practice of faith(信行儀禮) like Gongbuljaeseung(供佛齋僧, offering to Buddha and donation to monks and nuns) has lost its original meaning.

key word : the ritual programs, naming, indication, *The Procedure for the Rules of conduct*(作法節次, Jebanmoon(諸般文: the oration for the general rituals), Jungryemun(中禮文; the ritual program in epitome), Gyeolsmun(結手文, making mudrās), the shorthand for Jibanmun(志磐文; the ritual program by Giban), Jagimoon(仔夔文; the ritual program by Jagi), Blowfly(太末虫).

투고일 : 2016. 05. 15. / 심사일 : 2016. 05. 31. / 심사완료일 : 2016. 06. 06.